

산상 변모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TRANSFIGURATION SUNDAY

주후 2024년 2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70장 “피난처 있으나” (통일 7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번 시편 10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Mark)9:2-9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대
설 교 Sermon	“아무도 보이지 않고” (No Longer Saw Anyon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직 예수 뿐이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2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했고,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말하면서도,

감사가 없었고, 삶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나태함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4: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라.” (개역개정 **막9:7-8**)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with them except Jesus.” (NIV **Mark 9:7-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11 (주일)	2/12 (월)	2/13 (화)	2/14 (수)	2/15 (목)	2/16 (금)	2/17 (토)
	창44	창45	창46	창47	창48	창49	창50
본문	막14	막15	막16	눅1:1-38	눅1:39-80	눅2	눅3
	욥10	욥11	욥12	욥13	욥14	욥15	욥16,17
	롬14	롬15	롬16	고전1	고전2	고전3	고전4

특/별/ 선/교/ 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특별 선교집회 (2/14 오후7:30)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20) - 고광문 선교사
토요새벽기도회 (2/17 오전6:30)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시126:1-6)

지난 주일(2/4) 말씀

“새 힘을 얻으리나”(이사야 40:21-31)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박사는 책의 첫머리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머무름은 없고, 속도의 시간만 존재하며, 사색적 삶은 없고, 일하는 삶만이 지배하는 “성과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성과 위주의 현대 사회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러한 “피로사회” 안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자신 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여, 스스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버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활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사 40:21-31)은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사40:31상)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의미는 1)자신을 사로잡았던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 하다는 의미이고, 2)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이며, 3)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바꾸고 (Exchange) 갱신하다(Renew)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